

## 소형페트병파쇄기 개발, 환경 및 원가절감 극대화

### 기업운영이익 사회환원 의지, 환경사업 전환

최근 50여개사가 넘는 대기업의 계열사들에 대한 퇴출령이 내려졌다.

이로 인해 IMF의 한파 속에서 비교적 재무구조가 탄탄하다고 여겨졌던 기업들이 속속 부도 처리되고 있는데, 여기서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퇴출대상 기업 중 중소기업 고유업종 진출기업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불필요한 각 업계의 가지들을 쳐내고, 경제성장의 근간이 되어 왔고, 이제 다시 경제회복의 초석이 될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대한 첫 단추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대량 실업자의 양산이 예고되고 있기는 하지만,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속에서 꾸준한 성장을 도모해 오던 중소기업주들의 입장에서는 단비같은 기회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이다.

90년 6월, B·F(주)의 이위재 사장은 조명기구 도소매업을 시작한다. 마침 호황을 맞은 이 사업은 이 사장에게 실내장식업과 전기공사업을 추가하며 사세의 지속적인 확장을 추진하게 했으나 곧 국내 경제구조가 유통구조에서 도소매업만으로는 성공을 이루기가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고 제조업의 병행을 추진한다.

이와 같은 사업의 확장을 통해 경영자로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다는 이 사장은 “조명기구 도소매로 시작해 실내장식업까지 사세를 확장해 가면서 사회에 무엇인가를 환원할 수 있는 경영자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



▲ 이위재 B·F(주) 대표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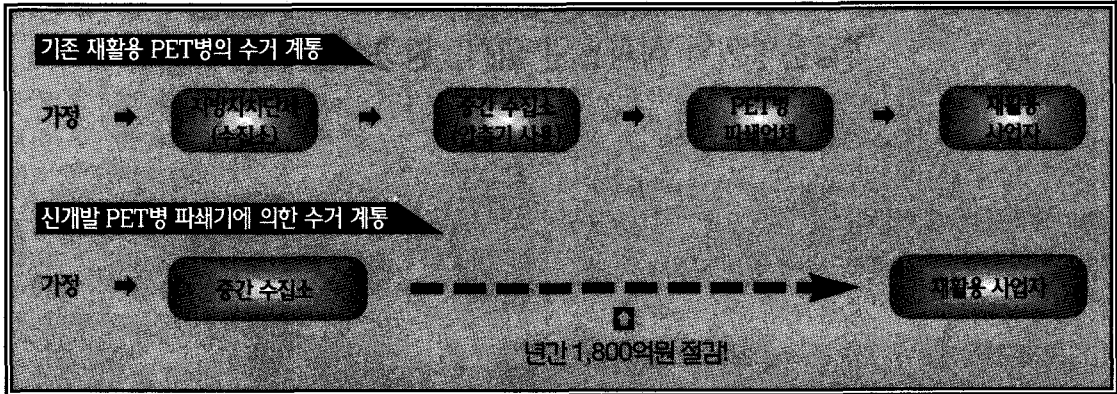
이 집중되고 있었고 평소, 재활용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터라 재활용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자 다짐하게 되었습니다”라며 환경산업에 뛰어들게 된 계기를 설명했다.

B·F(주)가 세인의 관심을 모으기 시작한 것은 바로 지난 4월 초 개발한 PET병 파쇄기인 PETCUT을 개발하면서부터이다.

B·F(주)가 개발한 PET병 파쇄기 PETCUT은 300ml이하의 모든 용기에 적용되며 크기가 적당해 대단위 주택단지과 지방자치단체 수집소, 음료수용기 수집소, 유원지, 병원, 호텔, 기숙사 등 폐PET용기의 발생지에서 즉각적인 처리가 가능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번에 개발한 PETCUT은 각종 비용절감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활용률을 제고했을 때 수거 및 물류비가 1,131억원이상 절감되고, 에너지의 경우 5억원 이상 절감이 가능합니다. 또

(그림) PET병의 기존 수거 계통과 PETCUT에 의한 수거 계통 비교



한 685억원의 수입대체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연간 총 1,820억원의 물류비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하는 이 사장은 이를 위해서는 소형 PET병 파쇄기인 PETCUT의 전국적인 보급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기존 폐PET의 수거계통은 아래 [그림]과 같이 5단계에 걸쳐야 하지만, PETCUT을 사용했을 경우 단 3단계에 처리가 가능하므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간 1,800억원의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론상으로는 무조건적인 환영과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 사장은 곧 자신의 개발품인 PETCUT이 환경문제 개선과 물류비의 절감 효과로 국가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쁜 꿈이 잠시 주춤거리는 아픔을 겪고 있다.

기존의 폐자원 유통경로를 책임지고 있는 단체 등에서 능동적이지 못한 자기 도피성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폐자원 유통경로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기존 업체들의 반발에 대한 대처와 이론상으로 설명되고 있는 PETCUT의 효과에 대한 소극적인 검토 등이 그것인데 이로 인해 잠시 좌절감을

맞본 이 사장은 오히려 이로 인해 PETCUT의 보급에 대한 의지에 더욱 힘을 얻은 듯 하다.

“지자체 선거가 끝이 났으니 이제 제가 할 일은 의회를 직접 찾아가 PETCUT에 대한 우수 성과 PETCUT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효과가 투자에 위배되지 않음을 설명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라는 이 사장은 자신이 직접 부딪혀 이 일을 성사시켜갈 계획임을 밝혔다.

당장의 설치과정에서는 설치비용, 홍보비 등의 비용이 들어가겠지만 환경문제가 하루이틀동안에 해결될 부분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는 이 사장은 PETCUT의 보급으로 폐PET의 재활용률을 80%선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확신했다.

PETCUT을 개발하면서 국내 시장은 개발자에게 불리한 여건이 너무 많다는 것을 실감했다는 이 사장은 유사업종에서의 모방으로 시장성을 잃고 중소기업이 스스로 자멸해가는 모습을 슬하게 보아왔고 이로 인해 비공개로 개발을 진행해 왔다고 밝히고 이로 인해 기계의 개발에 대한 국내기초자료의 수집에서부터 어려움이 많았다고 토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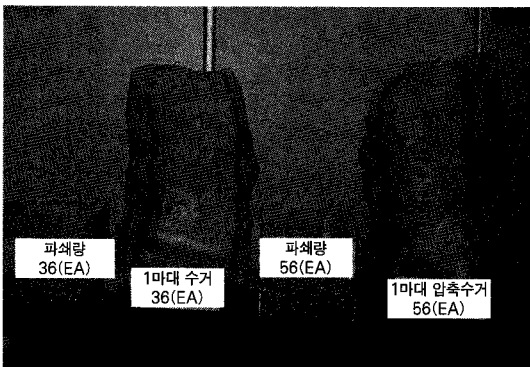
“국내에서는 자료를 얻기도 어려웠고 또한 자료의 수도 많지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외국의 자료들에 눈을 돌리게 되었고 여러가지 어려움은 있었지만 오히려 우수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라는 이 사장의 말에서 많은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하고 국내 최초로 PET병 파쇄기를 개발해 냈다는 자부심을 읽을 수 있었다.

PET병 파쇄기의 개발을 위해 선진국을 돌아보며 이 사장은 국내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인구밀도가 높아 수집은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재활용률이 낮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PET병 파쇄기를 개발하게 된 이 사장은 현재 소형 캔파쇄기의 개발에도 박차를 가해 재활용을 위한 수거 및 처리의 선진화에 앞장설 계획을 가지고 있다.

6월말까지 시운전을 통해 PETCUT이 출시될 경우 수집상을 비롯해 기득권을 가진 업체들과의 대립이 예상되지만 이 사장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하더라도 장기적인 효과의 부분에 집중해야 할 것임을 당부했다.

늘 사물에 대한 관찰을 통해 신개발품을 유추해 내고자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이



▲ 페PET병 수거방법에 따른 수거량 비교



▲ 98 재활용산업전에 출품되어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은 PETCUT

사장은 이번에 B·F(주)가 개발한 PETCUT이 기득권 세력에 의해 매장되어버리는 것에 대비해 제품개발 초기부터 많은 전략을 가져온 듯했다.

PETCUT의 개발을 통해 B·F(주)가 거두어낸 성과 중의 하나가 직원들에 대한 재교육의 필요성, 그리고 지속적인 직원교육에의 필요성 상기라는 것인데 현재는 모든 자산을 투자로 집중하고 있으나 이번 사업이 정착되고 성과를 거두어 가면서는 직원교육 및 자료조사 등에 예산의 비중을 크게 할 예정이라는 이 사장은 어려운 시대에 발 딛고 일어서는 중소기업인의 밝은 자신감을 보여주었다.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정책과 기득권 세력에 밀려날 수밖에 없는 시장경제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오면서도 꾸준한 신제품, 신기술의 개발로 국가경제발전의 초석이 되어온 중소기업의 꿈이 현실화되는 계기가 B·F(주)의 PETCUT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

윤지은 기자